

한국철학논집 제64집(2020.02)

한국철학사연구회

10.35504/kph.2020..64.001

한국고유사상과 유교(儒敎)의 습합(習合)

－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

이 상 성(Lee, Sang-seong)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겸임교수, leess521@skku.edu)

I. 시작하는 말

II. 한국고유사상의 特質

1. 神異的 靈妙性

2. 一體的 共存性

III. 한국고유사상과 유교의 習合

1. 주체적 선택과 구현

2. 현실적 변용과 실천

3. 개방적 공존과 조화

IV. 맺는 말

<논문 요약>

한국은 한국고유의 사상을 가진 나라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국이라는 지형 안에서 한국인에 의해 형성되어온 고유한 사상이 바로 한국고유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삶의 원천으로서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작용하여 왔다. 한국고유사상의 특질로는 첫째, 신이한 영묘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민족의 시원인 단군신화에서부터 비롯되어 한국고대사회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신이함은 비합리적 요소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높고 고귀한 정신이며, 이성만으로 설명 안 되는 정신적 특성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신시적 영명함은 한국적 고유정신의 핵심이다. 다음으로, 일체적 공존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인들은 일찍부터 ‘한민족’이라는 일체감 속에서 한마음으로 살아왔다. 고대부터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공동체를 가꾸며 삶을 영위해 왔다. 이러한 한국고유사상은 외래사상을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것은 특히 유교사상을 수용하여 생활 속에 녹여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대 한국인들은 고유한 사상적 특징을 바탕으로 외래사상인 유교를 수용했다. 그런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보였다. 첫째, 유교를 자기 자신의 신념에 의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교를 현실에 맞게 변용하고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거나 실천하였다. 셋째, 유교를 수용하되 다른 외래사상과의 공존과 조화를 도모하는 형식을 띠었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한국고유사상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유교라는 보편성을 띤 외래사상을 원만하게 수용하였으며, 한국적 특색을 지닌 한국유교로 발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제어: 한국고유사상, 영묘성, 공존성, 특수성, 유교, 보편성, 삼국유사, 삼국사기.

I. 시작하는 말

오늘날 문명의 속도가 너무 빨라 미래를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러니 고대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고대는 오래된 과거이고 자료도 적어서 더욱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지식은 과학에 기반한 ‘실용성’〔物質〕이 주축을 이루지만 고대에는 물질은 궁핍하였으되 ‘인간’이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고대가 ‘미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고(古)’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이며, 그 점에서 하나의 ‘지속’이다. 우리는 이 지속성 속에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환기하고, 소중한 자신의 일부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오랜 기억과 대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는 진정한 자기회귀(自己回歸)의 본질적 계기가 된다.¹⁾

그런 점에서 고대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고대사회에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민족의 고유한 사상적 특질이 존재해 왔다. 그것은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 토양은 외래소(外來素)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토양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사유를 풍족하게 해 왔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불도 등 다양한 외래사상을 수용하여 고유한 특성 위에다 사상적 보편성을 확대해 왔다. 외래사상을 수용하여 폭과 깊이를 확대해 오면서, 글로벌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특질을 지니고 살아오게 되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도 중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차이의 근원은 바로 고유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 짓게 하는 특수한 성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할 수

1)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5면

있겠지만 고유한 사상적 특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한국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이라는 사상적 토양이 있어 왔고, 그 토양은 위에 외래소의 접목과 습합과정을 통해 풍요로워지면서도 여전히 우리만의 그 특질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 고대를 탐색함에 있어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가장 오래된 길이고, 깊고 풍부한 안내자이다. 두 책은 한국 고대, 특히 삼국의 역사와 우리의 고유한 사유 방식 및 그 특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窓)이다. 두 책에는 수 백 회에 걸쳐 국내·외의 서적들이 인용되거나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 두 책만이 최고(最古)의 문헌으로 남아 있다. 두 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지만 성격이 다른 두 권[二而一, 一而二]이다. 그리하여 삼국시대 전후의 한국고대사회의 역사와 삶의 모습을 오늘의 우리에게 생생하게 인도해 준다. 그것은 마치 16세기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가 쌍벽으로 절정기 한국 성리학의 최고 수준을 정리한 것과 같다. 두 책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것을 가정하는 일은 마치 수레의 한 바퀴가 빠진 상황과 같다. 『성학집요』와 『성학십도』가 그렇듯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두 책 또한 목적은 한 곳을 향하지만 내용과 형식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본고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첫째, 한국고대사회의 고유하거나 본유한 사상의 특질이 무엇이며, 둘째, 그것이 외래사상, 특히 유교사상을 어떻게 습합하고 한국화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국고유사상의 特質

1. 神異的 靈妙性

우리 고대에는 서양의 창세기 같은 출발은 없지만 신화가 많다. 그 중에서도 <단군신화>는 한국사상의 시원이자 근원이다. 신화 형식의 시

원이지만 <단군신화>는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정신사의 근원으로 역할과 작용을 해 왔다. 그 속에는 한국고유사상의 성격을 결정하는 특질이 내재해 있고, 그런 특질은 고유소(固有素)로서 외래소를 수용하고 습합하는 바탕 내지 원형(原型)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선, 한국의 고유사상을 설명할 때 민족의 시원인 단군신화에 내재하는 신성성(神聖性)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신시(神市)’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성서롭고 고결한 곳임을 드러낸 것이다. 천상(天上)의 환인이 서자 환웅을 지상(地上)에 파견하는 구도는 한국적 고유 사유의식에 지존(至尊)의 세계를 그 근원에 설정하였음을 의미한다. 환웅이 천상의 제신들과 함께 신단수 아래 건설한 나라는 천상의 현실적 재현이라 볼 수 있다. 천상세계의 현실적 구현은 다른 민족의 신화에도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그 과정의 평화로운 진행은 한국고대의 사유적 특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단군신화 중 ‘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과 ‘天符印 三個’라는 표현 등은 도교적 색채가 보이기도 하지만²⁾, 우리고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던 신성한 사상적 특색이 신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쑥을 ‘영애(靈艾)’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라 하겠다. 어느 나라든 고대사회의 경우 민간신앙(民間信仰) 전반에 신선사상적 요소가 허다하기는 하다. 또 우리 단군신화에도 단군을 제석(帝釋)이라고 주석한 것은 불교적 특색마저 가미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삼국유사』를 찬한 사람의 신분적 특색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이런 신성성과 신비성은 대부분 하늘[天] 혹은 천의 상징인 일월(日月)과 연관되는 특성을 보여 주었다. 세계의 여러 신화에도 일월천체(日月天體)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특히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다양한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주몽, 박혁거세, 김수

2)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 探求堂, 1982, 96면

로와 관련하여서 국가를 세우는 사람들의 난생(卵生) 신화가 그려져 있고, 환웅과 해모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天神)의 자손 신화 구조도 있으며, 연오랑 세오녀와 같이 일월천체와 관련되는 등에서도 다양하게 ‘신성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국가의 건국자들 대부분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지만 하늘이나 알과 연관시켜 신성한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또 신화의 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기 왕비를 맞아 한결같이 신성한 혼인 의식을 거행했다. 우리 고대의 신화들에서는 혼인의 신성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두드러지는 점이다. 이러한 신성성은 신비로운 상상력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를테면, 하백의 딸 유화가 햇빛을 받아 알을 낳았는데 거기서 주몽이 태어나는 이야기, 도화녀가 이미 죽은 왕과 결혼해 귀신을 잘 부리는 비형랑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견훤의 아버지가 큰 지렁이였다는 이야기, 백제의 무왕이 서동요 노래를 퍼뜨려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는 결혼 형태 등등 하나같이 신비로운 상상력을 자극한다.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는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일연(一然, 1206~1289)의 경우 『삼국유사』 「서문」에서 무엇보다 삼국의 시조 탄생의 신비성과 신성성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단군신화를 첫 장에 기술한 것은 자못 의미가 깊다. 여기서 특히 고유사상의 원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삼국유사』의 사상적 가치를 조금 언급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연은 승려 신분으로 『삼국유사』를 썼지만, 여기에는 불교는 물론 전통 종교와 사상, 유교, 민속, 생활, 신화, 전설 등이 조화롭고 생생하게 어우러져 있다. 고래로 녹아있던 우리 고대 사회의 ‘기이’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신기한 스펙트럼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이」편이야말로 『삼국유사』의 꽃이라고 표현했고³⁾ 생명이라고도 했다⁴⁾. 그것이 있어서 우리의 고대가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었다⁵⁾는 의미

3) 이경덕, 『우리 고대로 가는 길 삼국유사』, 아이세움, 2006, 73면

4) 崔南善 編,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88, 12면

다. 특히 우리 고대인의 상상력의 원천인 신화와 우리 문화의 원형, 아름다운 고대의 노래[향가]와 같은 보물이 담겨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고래의 사상적 특질과 정신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반영한 결실이다. 그리하여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고대역사는 물론 사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저술로 자리 잡아 왔다. 그동안 다른 불[著述]들이 다 사라진 밤바다를 오롯이 밝혀 왔는데, 미래에는 이 빛이 더 밝힐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좀 더 살펴서, 『삼국유사』 「감통」 편의 ‘용천사의 혜성가’⁶⁾와 ‘연오랑 세오녀’⁷⁾의 이야기 구조를 들여다보자. 용천사 관련하여서는 화랑 세 무리가 금강산에 놀이를 가려는데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침범하자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니 혜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가 물러나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연오랑 세오녀의 경우도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내용이다.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고대 한국인의 하늘 경배의식 구조를 읽는 코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는 일연이 박인량의 『수이전(殊異傳)』에 있는 내용

5) 육당 최남선은 “만약 『三國遺事』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대 세계를 잃을 뻔 했다”고 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6) 『三國遺事』卷5, 「感通」, <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 第五居烈郎·第六實處郎 一作突處郎·第七寶同郎等三花之徒欲遊楓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即滅, 日奔兵還國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歌曰. 舊理東尸汀叱軋達婆矣遊烏隱城叱盼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蔽耶,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後句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

7) 『三國遺事』卷1, 「紀異」, <延烏郎細烏女>: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 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 一日延烏歸海採藻. 忽有一巖. 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 乃立爲王. 細烏怪夫不來. 歸尋之. 見夫脫鞋. 亦上其巖. 巖亦負歸如前. 其國人驚訝. 奏獻於王. 夫婦相會. 立爲貴妃. 是時新羅日月無光. 日者奏云. 日月之精, 降在我國. 今去日本. 故致斯怪. 王遣使求二人. 延烏曰. 我到此國, 天使然也. 今何歸乎. 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 仍賜其綃. 使人來奏. 依其言而祭之. 然後日月如舊. 藏其綃於御庫爲國寶. 名其庫爲貴妃庫. 祭天所名迎日縣. 又都祈野.

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이 설화의 구조는 해와 달 및 하늘 숭배 사상을 포함하는 우리 고대인의 광명의식이 무엇보다 잘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인의 다양한 의식구조를 잘 녹여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떠올릴 정도로 해와 달 설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다. 또 왕비가 손수 생초 비단을 짠다는 대목은 직녀가 연상되기도 한다. 여기 언급된 신라 제8대 아달라왕의 ‘아달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처럼 읽힌다. 신라 1~7대 왕의 이름은 박혁거세, 남해, 노례, 석탈해, 파사, 지마, 일성인데, 주지하다시피 혁거세는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이’라는 뜻이고, 탈해는 ‘궤를 열고 나온 사람’을 뜻하는 순우리말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이 중 일성은 ‘뛰어난 성인’이라는 의미의 유교식 시호를 취한 것이고, 5대 왕 파사는 뜻은 분명치 않으나, 불교식 칭호임은 분명하다. 이때 이미 불교가 신라인에게 습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오랑 세오녀 부부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모두 까마귀 ‘오(烏) 자’를 쓴 점은 고구려 벽화 속 태양을 의미하는 ‘삼족오’를 연상하게 한다. 설화 중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가면서 ‘해와 달의 정기가 사라졌다’는 내용에는 광명 의식이 내재되어 있음 또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일식과 월식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현상에 관계없이 고대 한국인들이 빛의 신(神)인 해와 달을 경배(敬拜)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 주는 기호임에는 분명하다. 일반화된 광명의식의 사유구조가 설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다. 이 설화의 지명인 영일현 또는 ‘도기야’도 그런 의식이 반영된 지명으로 읽힌다. 영일현은 지금의 포항시 동해면 지역인데, 영일은 ‘해를 맞이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양주동은 ‘도기야’를 순우리말 ‘(해)돋이’의 한자식 표기로 보았고, 현 지명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와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그 뜻이 살아 있다고 한다.⁸⁾

또한 『삼국유사』 권 제5 「신주」는 ‘신비로운 주술’이라는 뜻이지만, 흔히 떠올리는 사악한 주술이 아니라 「기이」편과 더불어 우리 고대사회에 널리 성행한 신비스런 구조를 다양하게 전개한 것이다. 승려 혜통이 중국 유학 중 본국에 돌아와 독룡(毒龍)을 굴복시킨 이야기에는 독룡이 정공에게 원수를 갚고 난 후 기장산으로 가서 웅신(熊神)이 되었고, 그 악독함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괴로워하자 혜통이 불살계(不殺戒)를 주니 해로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 용이 산으로 되어가 웅신, 즉 곰신령이 되었다는 구절은 기존의 전통 신앙적 요소이다. 그 구도는 전통신앙과 불교의 대립적 관계에서 고승의 능력에 감화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곰이라는 단군신화적 요소로 쉽게 연결된다. 곰은 단군의 어머니 웅녀를 떠올리게 하고 특히 고대 전통신앙에서 곰은 다름 아닌 신령성, 즉 신을 상징하기도 하였다.¹⁰⁾ 이외에도 곰 관련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단군신화를 연상시키는 곰을 제시한 것은 우리 고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언뜻 전통신앙과 불교의 대립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두 요소가 대립하지 않고 융합하며 어울리는 양상이다. 일연이 불교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라의 전통 신앙적 요소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군의 신시적 홍익인간의 이념은 이후 우리 역사를 통하여 한국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이 교섭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칭과 형태로 변화된 표

8) 이런 의식구조에 대해 시인 서정주는 시(詩) ‘신라풍류1’에서 “신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늘의 빛을 섞어 하기를 좋아했다”고 읊었는데 문학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미당 서정주 시전집』 1권 <신라초>, 은행나무, 2015]

9) 『三國遺事』 卷5 「神呪」6, <惠通降龍> : 釋惠通.....忽有蛟龍走出, 疾遂瘳. 龍怒通之逐已也, 來本國文仍林害命龍毒 …… 王女忽有疾詔通治之, 疾愈王大悅. 通因言, 恭被毒龍之汚濫膺國刑. 王聞之心悔乃免恭妻孥, 拜通爲國師. 龍既報冤於恭往機張山爲熊神, 慘毒滋甚民多梗之. 通到山中諭龍授不殺戒, 神害乃息.

10) 이경덕, 『우리 고대로 가는 길 삼국유사』, 아이세움, 2006, 114면

현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최치원은 이것을 ‘현묘지도’로, 현상윤은 ‘신도(神道)’로, 이능화는 ‘신교(神敎)’ 최남선은 ‘고신도(古神道)’, 신채호는 ‘낭가(郎家)사상’이라고 각각 불렀는데 한결같이 ‘화랑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공통된 관점을 보였다. 이것은 단군신화의 신령성이 한국사상의 원류로 형성되고 이후 한국사상사의 혈맥으로 자리 잡고 흘러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一體的 共存性

한국 고대사회의 또 다른 사상적 특질로는 일체적 공존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고유성과 외래성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회 구성원 간, 특히 남성과 여성 간에 갈등 양상이 존재하기 보다는 지혜롭게 조화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접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원화>제도 및 <화랑>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화> 제도는 화랑의 전신으로 『삼국유사』에서는 ‘원화(原花)’로 기록되어 있다.¹¹⁾ 원화는 곧 여성 화랑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는데¹²⁾,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를 이끄는 중심인물 또는 그 단체를 말한다. <원화>는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점이 발생하였고, 후에 <화랑>제도로 개선되었다. <원화>와 <화랑>은 공히 우리 고유의 청년 수련 단체 혹은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삼국유사』에서는 대체로 ‘국선’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도교의 신선사상이나 불교의 미륵신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를 만들었다.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후에 발탁해서 쓰려고 하였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 즉 남모와 준정을 뽑고 무리 3백여 명을 모았다.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였는데, 준

11) 『三國遺事』卷3, 「塔像」4,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條 참조

12)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역사와 현실』67, 2008

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서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무리들은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게 꾸며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도의(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노닐고 즐기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게 되어 착한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그러므로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말하기를, “어진 보필자와 충신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은 이로부터 생겼다.”라고 하였다.¹³⁾

<원화>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당시까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오히려 남성보다 우위이거나 최소한 낮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고대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원화>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미모의 남성, 즉 화랑으로 대체되기 이전까지 청년수련단체 혹은 제도의 리더를 담당하여 왔던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신라시대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과 같은 여성 임금의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계 중심의 고대 사회가 지속되어온 면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남성보다 하위가 아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선덕여왕 16년 봄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동원하여 반역을 도모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해 8월에 선덕여왕은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통감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그대 나라는 부인[선덕여왕]을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

13)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 三十七年 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類聚遊, 以觀其行義, 然後舉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徒三百餘人. 二女爭媚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強勸酒至醉, 曳而投河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郎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김을 받게 되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 도둑을 불러들이게 되어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었다. 내가 왕족 중의 한 사람을 보내 그대 나라의 왕으로 삼되, 자신이 혼자서는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 호위케 하고, 그대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그대들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 한다.¹⁴⁾

이 원문에 이어진 논평에서 김부식은 『서경』에서 “암탉이 새벽에 운다”는 말과 『주역』에서 “암탉지가 경충거린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로 삼을 일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¹⁵⁾ 여성여왕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편협한 중국인들의 태도와 인식을 가감 없이 수용하여 기록하는 태도는 적어도 한국고유사상이 사회적 주류로 작용하던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파악된다. 중국으로부터 이런 지적 혹은 유교 경전 내에서 남존여비적 일부 불평등한 구절을 접목시키기 이전 한국고대 사회에서의 남녀는 매우 대등하거나 여성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고유사상을 기반으로 하던 고대 사회의 경우 대체로 남녀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물론 유교의 본의에서 남녀는 결코 불평등하지는 않으며, 음양은 대대(待對)한 지위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음양론은 남존여비 같은 편협적 시각으로 해석되거나 강요되어 왔던 점은 부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또한 한국고유사상의 원형으로부터 시사 받아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단군의 건국신화에서부터 하늘과 인간, 그리고 자연사물 등

14)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五 <善德王> : 十二年 秋九月, 遣使大唐上言,..... 爾國以婦人爲主, 爲鄰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支, 與爾國主, 而自不可獨王,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15)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五<善德王> 十四年: 論曰. 臣聞之, 古有女媧氏, 非正是天子, 佐伏羲理九州耳. 至若呂雉·武曩, 值幼弱之主, 臨朝稱制, 史書不得公然稱王, 但書高皇后呂氏·則天皇后武氏者. 以天言之, 則陽剛而陰柔, 以人言之, 則男尊而女卑, 豈可許姥嫗出閨房, 斷國家之政事乎. 新羅扶起女子, 處之王位, 誠亂世之事. 國之不亡幸也. 書云, 牝雞之晨. 易云 羸豕孚蹢躅. 其可不爲之戒哉.

일체의 존재가 차별 없이 조화를 이룬 우리 민족의 시원적 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한국고유사상 차원에서 남녀를 존비, 귀천, 강유, 동정과 같은 차별적 가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그런 관념이 개입되거나 부여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교와 불교 등 외래사상 유입이전 상당기간 동안 한국고대 사회의 특징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대개 <화랑>제도는 그 이전 삼한 사회의 청년 집회로부터 시원하여 발전되고 신라시대에 법제화되었다고 보는데, 당시 삼국 간 경쟁 중 요청되던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로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설치 시기는 562년(진흥왕 23)에 가야를 정벌할 때 화랑 사다함의 기록으로 미루어 진흥왕 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조직은 화랑 단체마다 진골 출신의 화랑 1명과 그를 자문하는 승려 낭도 1명, 그리고 진골 이하 평민에 이르는 천여 명의 낭도들로 구성되었다. 화랑도의 구성원은 대체로 15~18세의 청소년들로, 3년 동안 수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총과 호 등의 유교적 덕목을 수련하고, 산수를 유오(遊娛)하며 가락을 즐기고 집단 의식과 인성을 길렀다. 그래서 화랑도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사우(死友)를 약속할 정도로 서로간의 인간적인 유대가 긴밀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평생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문이 지은 화랑의 전기로 추정되는 『화랑세기』는 지금은 전하지 않으나 그 당시 화랑들의 전기를 기록할 만큼 그 제도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치원은 <난랑비>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실로 이는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못 백성들과 접하여 교화한다. 이를테면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함은 노나라 사구의 가

16) 이기동, 『신라의 골품제도와 화랑도』, 일조각, 1984/박남수, 「신라 진흥왕대 정치사회와 화랑도 제정」, 『사학연구』 92, 2008 참조

르침이다. 자랑함이 없는 일을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 주사의 뜻이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은 축건태자의 교화이다”라고 하였다. 당나라의 영호정은 『신라국기』¹⁷⁾에서 말하기를, “귀족의 자제 중에서 아름다운 이를 택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서 이름을 화랑이라고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겼다.”라고 하였다.¹⁸⁾

최치원이 ‘현묘지도’로 규정한 ‘풍류도’는 한국고유사상의 핵심체로 판단된다. 당시 지배 사상이었던 유불도 삼교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한국 고유사상인 ‘풍류도’를 통해 상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고유사상의 전형인 ‘풍류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부각시킨 점에서 사상사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단지 확인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편사상인 유불도의 가치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고유사상의 특질을 일반화 혹은 국제화시킨 의의도 갖는다. 그것은 고유사상의 재발견이자 고양(高揚)이며 민족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존감의 확보이기도 하다.

<난랑비>는 난(鸞)이라는 화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으로 추정된다. 난랑을 진흥왕대 최초의 화랑¹⁹⁾이라고 보기도 하고, 신라 하대의 화랑²⁰⁾이라고도 하였으며, 심지어 경문왕으로 보는 견해²¹⁾도 있다. 이런 주장을 고려할 때 난랑은 신라의 화랑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17) 768년(혜공왕 4)에 당(唐)나라의 책봉사(冊封使)인 귀숭경(歸崇敬)을 따라서 신라에 왔던 고음(顧愔)이 신라를 견문하고 귀국해서 지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新唐書』권58, 『藝文志』에 의하면 단권(單卷)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책이다.

18)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三十七年: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羣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唐令狐澄新羅國記曰, 擇貴人子弟之美者, 傅粉粧飾之, 名曰花郎, 國人皆尊事之也.

19)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63면

20)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2면

21) 장일규,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4, 2005, 269~273면

나란히 소개된 『선사(仙史)』는 화랑의 역사서로 보이는데,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라는 주장²²⁾도 있다. 여기서 삼교는 유교·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우리의 고유사상의 원형(原型)에 동양의 주요 대표 전통사상이자 종교인 유불도의 특질적 내용이 이미 내재한다는 중요한 설명이다. 내용 중 특히 ‘接化羣生’을 ‘相接融화하여 同根叢生한다’고 풀이하는 견해²³⁾도 있지만, 실은 풍류도의 핵심 내용이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공허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교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고유사상의 시원에 현실 사회를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교화한다는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한편 내용 중 “入則孝 出則悌”는 『논어』 「학이」편을 인용하여 응용한 말이고, 사구는 공자를 지칭한 말인 바 중국의 하·은·주 3대에 형옥(刑獄)을 맡은 6경(卿)의 하나다. 공자 50세 때인 노나라 정공 9년에 대사구에 임명된 적이 있었으므로²⁴⁾ 윗글에서는 공자를 지칭하여 사구라고 하였다. 노자 사상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²⁵⁾은 도덕경에서 바로 인용하였는데, ‘무위(無爲)’는 인위적이 않고 자연스러움을 뜻하고, ‘불언(不言)’은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절로 행하여지도록 함을 가리킨다. 노자를 뜻하는 주사는 주하사의 약칭으로 중국 주나라 장서실의 일을 맡아보던 관직이며, 진나라 때 시어사로 변경되었다. 노자가 한때 주나라의 장서실 일을 맡아보았으므로²⁶⁾ 노자를 지칭하여 주사라고 하였다. 또한 불교사상의

22)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2면

23) 김유성, 「난랑비서 해석에 대한 고찰」, 『대구한의과대학 논문집』1, 1983, 55~68면

24) 司馬遷, 『史記』卷47, 「孔子世家」參照

25) 『道德經』第2章：天下皆知美之爲美，斯惡已，知善之爲善，斯不善已。故有無相生，難易相成，長短相形，高下相傾，音聲相和，前後相隨。是以聖人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萬物作焉而不辭，生而不有，爲而不恃，功成而弗居，夫唯弗居。是以不去。

26) 司馬遷, 『史記』卷63, 「老子列傳」參照

핵심을 정리한 말인 ‘諸惡莫作 衆善奉行’은 ‘自淨其意 是諸佛教’의 줄임말로, 이 4구제는 대승과 소승불교에서 각각 중시하는 계승으로 인식되는 구절로 『열반경』과 『법화현의』 등에서 이 구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축건은 천축 곧 인도의 별칭인데, 석가모니의가 인도 가빌라국의 태자였으므로 축건태자라고 하였다.

윗글에서 최치원은 한국사상사에서 볼 때 기록상으로 최초로 한국사상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인물이 되었다. 본인 스스로 기본적으로는 유자로 자처하면서 불교와 도교에도 정통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중국과 다른 한국사상의 고유한 특질에 대하여 주목한 점에서 그는 특별한 사상가였다. 그의 한국사상의 특질에 대한 관심과 규정은 <난랑비서문>과 쌍계사 <진감선사비문> 등에 매우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고유사상이 갖는 특수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선진 외국 사상과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사상과 문화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특히 최치원의 ‘동인의식’에서 기반하는 한국고유사상의 특질을 정의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진감선사 비문>에서 최치원은 진리 앞에 개방적인 태도와 인식을 정리하면서 우리 동인, 즉 한국인이 유교와 불교를 겸하는 것은 필연적인 특질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무릇 진리[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고 사람은 이국이 없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사람[東人=한국인]이 불교를 하고, 유학(儒學)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²⁷⁾

이러한 최치원의 의식과 관점은 자신이 중국에 유학하면서 ‘한국’ 혹은 ‘한국인’, ‘한국사상’에 대한 관심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었다. 그는 한

27) 崔英成 註解, 『註解 四山碑銘』 <眞鑑禪師碑銘> : 夫道不遠人, 人無異國. 是以 東人之子, 爲釋爲儒 必也, 亞細亞文化社, 1987, 101面

마디로 ‘뿌리 있는 한국인이자 국제인’이었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상의 고유성에 유불도적 요소로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질을 밝힌 점은 돋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다른 한국사상의 정체성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이 외에도 『삼국유사』 「감통」편은 물론 ‘홍법’, ‘탑상’, ‘의해’편 등에서 당대의 사람들이 감통·소통·인지하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한 것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교 수입과 수용과정에서 토착 신앙 내지 고유사상과의 갈등 양상이나 몰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후 원만하게 불국토를 희구해 나가는 면도 그렇다. 특히 일연은 한국사상의 시원이자 연원인 단군신화를 『삼국유사』의 첫 장으로 제시하여 우리 민족이 우주와 처음 만나는 태곳적 체험이자 깊은 내면적 상상력이 내재하고 논리를 초월한 감통적 정서를 잘 드러내 주었다. 거기에는 천(天)의 강림과 인간의 호응이 상호 절묘하게 감응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 있고, 천신 환웅마저 인간 세상을 원하고[貪求人世] 지상의 꿈과 호랑이도 사람 되기를 원하는[願化爲人] 인본주의가 내재하며, 성속(聖俗)이 여일(如一)하게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근원인 하늘을 숭배하며[敬天], 호생(好生)의 덕이 건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수 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윤리의식과 공통적 정서를 샘솟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런 조화적 상징성은 민족의식의 원형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념적 방향과 정서를 이끌어 왔다.

Ⅲ. 한국고유사상과 유교의 습합

1. 주체적 선택과 구현

한국고대사회에서 유교와 불교 등 보편성을 지닌 외래사상은 진리 혹은 새로운 지식 세계를 찾던 고대 한국인의 지적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래 사상을 접하는 당시 지성들의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열망과 열린 정신의 실현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 대표

적인 사례가 처음으로 열린 관점으로 유교 사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했던 신라 지식인 강수(强首)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 <강수>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강수는 자라면서 스스로 책을 읽을 줄 알아 그 뜻을 환하게 통달하였다. 아버지가 그의 뜻을 알아보고자 물었다. “너는 불교를 공부하겠느냐, 유학을 공부하겠느냐?” “제가 듣기로 불교는 세속을 떠난 가르침이라 하니, 저와 같은 세속의 사람이 어찌 불교를 공부하겠습니까? 유학의 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네 좋을 대로 하여라.” 마침내 스승을 찾아 『효경』 『곡례』 『이아』 『문선』을 읽었다.²⁸⁾

열전에 의하면, 강수는 당시 중원경 사랑부 명문가 출신으로 일세의 명망이 있어 20세 전후한 때에 이미 나라사람들이 다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태종대왕 대에 당의 조서 중 난해한 부분을 한 번 읽고 풀어 의심하거나 막히는 곳이 없었고 표문을 잘 짓기로 유명했다. 또 문무왕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에 군사를 요청하는 문장을 그에게 짓게 함으로써 군사적 공로와는 달리 문장의 도움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높이 평한 바 있다.²⁹⁾

여기에는 당시 신라의 명문 지식인들의 학문에 대한 취사 선택과정과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강수의 부친은 강수에게 불교와 유교 중 무엇을 택해 공부할지를 물었고, 강수는 불교가 아닌 유교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불교에 대한 인식은 ‘세외교(世外教)’라는 이유였고, 유교를 택하는 이유는 자신이 세속의 인간이므로 자연히 세속지교인 유학을 택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수 부친의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다.

신라 청년들, 당시 3국간의 경쟁과 도전 상황에서 역경을 극복하지

28) 『三國史記』 卷46, 「列傳」 第6, <强首> : 及壯自知讀書通曉義理, 父欲觀其志, 問曰爾學佛乎學儒乎. 對曰 愚聞之, 佛世外教也. 愚人間人, 安用學佛爲, 願學儒者之道. 父曰 從爾所好. 遂就師, 讀孝經曲禮爾雅文選, 所問雖淺近, 而所得愈高遠, 魁然爲一時之傑.

29) 『三國史記』 卷46, 「列傳」 第6, <强首> 參照

않는 ‘자기 결정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준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가장 약체로 꼽혔으며, 가장 늦은 문화 수혜국 신라의 삼국통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삼국의 변화는 역경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당시 신라인, 특히 청년들의 노력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토인비가 말한 ‘도전에 대한 응전’과도 통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유교가 우리 고대사회에 언제 누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수용되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록상으로 고구려에 태학이 설립된 것은 구체적인 전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지만, 태학의 건립 같은 공식적 기원보다는 개인일지라도 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습합해 나가는지를 여기서는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강수의 사례는 매우 적절하다. 강수야말로 주체적·자각적 유학인으로 나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불교와 유학 중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전적으로 배우는 사람 스스로 주체적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이것은 당시의 학문 선택 과정이 대체로 자유롭고 틀에 얽매여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학문과 사상의 선택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강수는 당대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 사상가로서, 정치가로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원효의 아들 설총(薛聰)도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자기 학문을 선택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원효와 설총은 부자지간이지만 추구한 학문이 달랐기에 서로 거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연이 『향전』에 실린 원효에 관한 일을 옮겨 적은 기록을 보면, 원효가 입적하자 설총이 유해를 잘게 부수어 진용으로 소상을 빚어 분화사라는 절에 모시고 예를 올리자 비로소 소상이 돌아보았다는 내용이 나온다.³⁰⁾ 이것

30) 『三國遺事』卷4 「義解」5 <元曉不羈>.....既入寂，聰碎遺骸塑眞容安芬皇寺，以表敬慕終天之志。聰時旁禮像忽廻顧，至今猶顧矣。曉嘗所居穴寺旁有聰家

은 원효가 죽고서야 설총이 아버지를 모셨고 원효 또한 죽어서야 고개를 돌려 아들 설총을 바라보며 정을 표시했다고 본다.³¹⁾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설총은 부자지간의 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 혹은 사상[종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공히 이미 3세기 가야지역의 이른바 ‘포상 8국’이 신라를 공격해 왔을 때 수훈을 세운 ‘물계자(勿稽子)’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 나온다. 물계자는 제10대 나해왕의 충성스런 신하이자 지조 있는 선비였다. 그는 212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왕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업적을 자랑하고 아픔을 다투며 자기를 뽐내고 남을 누르는 것은 뜻있는 선비[志士]가 할 일이 아니다. 힘써 때를 기다릴 뿐이다³²⁾”고 말하며 큰 용기와 충성심이 없는 자신을 탓했다. 그 주변에서 이간질에도 선비의 지조를 말하는 인품은 의식 있는 선비, 즉 유자(儒者)의 도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伐功爭命 揚己掩人 志士之所不爲也’라고 하는 부분은 『논어』 「이인」편 “벼슬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설 것인가를 걱정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알아주게 되기를 근심하라”³³⁾는 공자의 말을 연상시킨다. 이쯤 되니 물계자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모두 여섯 차례나 나온다. 공(功)에 연연하지 않고 수신에 힘쓰는 물계자의 태도는 군자는 오직 자기에게서 구할 따름이라는 유교적 덕목 실천과 상당부분 통하는 바가 있다. 『삼국유사』 제9편은 이름 자체가 「효선(孝善)」이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되려

之墟云

31) 이경덕, 『우리 고대로 가는 길 삼국유사』, 아이세움, 2006, 103면

32) 『三國遺事』 卷5, 「避隱」8 <勿稽子> :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八國併力來侵過境. 王命太子椽音將軍一伐等率兵拒之, 八國皆降. 時勿稽子軍功第一, 然爲太子所嫌不賞其功. 或謂勿稽子, 此戰之功唯子而已. 而賞不及子, 太子之嫌君其怨乎. 稽曰, 國君在上何怨人臣. 或曰, 然則奏聞子王幸矣. 稽曰, 伐功爭命揚己掩人志士之所不爲也, 勵之待時而已.

33) 『論語』 「里仁」 : 子曰 不患無爲,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면 가족과 연을 단절하는 출가를 하지만 효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는다. 유교적 효를 행하는 것을 일연은 불교적 선과 연계시키는 모습이다. 진정법사의 효도와 선행을 드러내고, 김대성이 전생과 이생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향득사지(向得舍知)가 흥년이 들자 다리의 살을 베어 아버지를 공양하는 것과 손순의 아들이 모친의 먹을 것을 빼앗아 먹자 매아(埋兒)하는 애기와 눈 먼 빈녀가 양모(養母)하는 이야기는 모두 효를 실천하는 대목들이다. 특히 대성의 효도는 전생과 이생 즉 2대에 걸친 효행이며 불교의 윤회사상이 기저에 깔려 있고, 꿈에 꿈이 살생에 대한 죄를 묻는 장면은 단군신화의 꿈과 호랑이를, '빈녀양모'는 한국 고전소설의 <심청전>의 설화적 저본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핵심 주제는 효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2. 현실적 변용과 실천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그 시대마다 당면했던 과제나 위기를 대처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대처하는 태도와 방식은 당대의 가치관과 사상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삼국간의 경쟁기간 중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외침을 막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용맹스런 의지를 갖춘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고대로부터 의식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고유한 사상적 특성은 물론 유교나 불교 또한 당대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용시켜 호국사상이나 호국정신의 가치관으로 적용시켜 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속오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세속오계>는 귀산(貴山)과 추항(籌項)이라는 신라 두 청년이 당시 승려이면서 유교에도 겸통(兼通)하였던 원광법사(555~638)에게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요청하는 형식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원광에게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포부와 뜻을 아뢰고 <세속오계>라는 실천 덕목을 받게 되고, 덕목 중 특히 '살생유택'이라는 조건적 계율에 주목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교양과 인격이 높은 사람과 더불어 놀기

로 기약하였으니,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지 않는다면 아마도 치욕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어진 이의 곁에 나아가서 도를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유학하고 돌아와서 가실사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높이 예우하였다. 귀산 등이 문하에 이르러 옷자락을 여미며 나아가 말하기를, “세속 선비는 미련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한 말씀을 주셔서 종신토록 지킬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법사가, “불계에는 보살계가 있는데, 그 종목이 열 가지이다. 너희들이 신하로서는 아마도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 섬기기를 충으로써 하고, 둘째 아버지 섬기기를 효로써 하며, 셋째 친구 사귀기를 신으로써 하고, 넷째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며, 다섯째 생명 있는 것을 죽이지 가리라. 너희들은 이것을 실행함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귀산 등이, “다른 것은 이미 명을 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살생유택만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법사가 “육재일과 봄철과 여름철에는 살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때를 가리는 것이다. 부리는 가축을 죽여서는 아니 되니, 말·소·닭·개를 말한다. 작은 동물은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함이다. 이것은 물건을 가리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면 오직 그 쓰이는 바, 많이 죽이는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세속의 좋은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귀산 등이 “지금부터 이후로 받들어 좃아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³⁴⁾

『삼국사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광은 6세기 말 중국에 유학하였던 신라 고승이었다. 귀국후 가실사에 머물 때 귀산과 추항이 찾아와 평생토록 지킬 계율을 요청하자 <세속오계>를 제시한 것이다. 원광은 불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계하여 정진할 점찰법을 정기적으로 베

34) 『三國史記』卷46, 「列傳」6, <貴山> : 貴山少與部人箒項爲友. 二人相謂曰, 我等期與士君子遊, 而不先正心修身, 則恐不免於招辱. 盍聞道於賢者之側乎. 時圓光法師, 入隋遊學, 還居加悉寺, 爲時人所尊禮. 貴山等詣門, 摳衣進告曰, 俗士顛蒙, 無所知識. 願賜一言, 以爲終身之誡. 法師曰, 佛戒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貴山等曰, 他則既受命矣. 所謂殺生有擇, 獨未曉也. 師曰, 六齋日·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雞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臠. 是擇物也. 如此唯其所用, 不求多殺. 此可謂世俗之善戒也. 貴山等曰, 自今已後, 奉以周旋, 不敢失墜.

풀 기금을 마련하였고³⁵⁾ 입적³⁶⁾ 할 때까지 불교 대중화에 공로가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는 여래장에 대한 몇 권의 저술을 남겼으며³⁷⁾ 귀산과 추항에게 내린 <세속오계>는 한국사상사에서 외래소의 습합과정을 살피는 중요한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세속오계>는 원광이 당시 평생의 교훈을 받고자 찾아온 귀산과 추항에게 제시한 세속 청년으로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이었다. 그리고 당시 화랑들의 핵심 계율로 수용되었다. 오계인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유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은 당시 지식인과 청년들의 외래사상 수용 방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내용이다. 승려가 현실에 충실한 청년 화랑들에게 내린 계율이지만 전적으로 불교적 교리와 내용으로 일관하지도 않았다. 또 유교철학과 사상을 상당히 수용하면서도 오륜(五倫)을 그대로 따른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원광이 당대의 현실적 요청에 한국 고유의 사상적 특색과 불교와 유교 철학을 종합하여 청년들에게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세속오계>의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학설이 존재해 왔다. 첫째, 당시 국가, 사회, 가정생활에 가장 필요로 했던 덕목을 종합하였다는 설인데, 불교적 가르침 이전에 민족적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이고,³⁸⁾ 둘째, 그 내용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유교 오륜을 근본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³⁹⁾, 셋째, 비단 화랑 집단 성원만의 덕목이 아니라 6~7세기 신라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전통적 주체성에 기반하여 취사선택한 것이었다는 설⁴⁰⁾, 넷째, 6~7세기 신라의 공동체 윤리였다는 설⁴¹⁾ 등이 그

3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46면

36) 88세 혹은 99세(『續高僧傳』)에 입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37) 『三國遺事』 卷4 義解篇 <圓光西學>條 참조

38) 丁淳穆, 「教育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41~442면

39) 崔根德, 「儒敎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720~721면

40) 김철준·최병현,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일지사, 1986, 191면

41)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46면

것이다.

<세속오계> 중 원광은 ‘살생유택’에 가장 역점을 두었음이 드러난다. 계율 설명 방식도 가장 총체적인 형식을 띠었다.⁴²⁾ 원광은 귀산과 추향이 세속인임을 감안하여 ‘살생유택’의 ‘가림’을 설명하였는데, 불교의 교리와 달리 당대 현실 상황에 적합하도록 여섯 재계일(齋戒日)을 피하라는 응용 제안을 하였다. 육재일에 사천왕이 사람의 선악을 엿보므로 특히 조심하라⁴³⁾는 것인데, 이런 수준의 절제는 누구나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광이 ‘가림’을 ‘때’[擇時]와 ‘생물’[擇物]로 구분한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세속오계>는 유교의 주요 덕목인 충효신용인(忠孝信勇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임전무퇴’는 용(勇)을, ‘살생유택’은 인(仁)과 통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본디 불가의 근본사상은 살생을 악업으로 여겨 엄금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안자가 승려였던 점에서 세속적인 계명일지라도 불가의 속기일(俗忌日)과 춘하절을 피할 것[擇時], 가축 혹은 미물을 죽이지 말 것[擇物]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6재일을 제외하고는 유교사상과 통하는 부분이다. 이와같이 고유사상과 유교 및 불교사상을 종합적으로 묘합하여 <세속오계>로 제안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원광 자신이 고유사상은 물론 유학에도 겸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책(國策)에도 순응하던 태도를 지닌 측면으로 보인다.⁴⁴⁾

다음으로 <임신서기석>을 통하여 당대 청년들이 유교사상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습합하고자 하는 지를 살펴보자. <임신서기석>은 경상북도 월성군 견곡면 금장리에서 발견된 신라시대의 주요 금석문 중 하나이다. 특히 신라 전성기 청년들의 국가의식과 윤리 및 사상 습합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정통 한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순수 민간의 자

42)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47면

43)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II, 한길사, 1998, 818면

44)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671면

녀들로 보기도 한다. 이 점은 당대 명문가의 지식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 혹은 대중의 외래사상 수용과 학습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쓴다. 하늘 앞에 맹서하여,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忠道)를 집지하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을 잃으면 하늘로부터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가히 행할 것을 받아들임을 맹서한다. 또 따로 먼저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서하였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서하되 3년으로 하였다.⁴⁵⁾

여기서 임신년(壬申年)은 이 비의 제작연대인데, 학계에서는 신라 역사 중 화랑도가 융성하던 진흥왕 13년(552)이나 진평왕 34년(612)으로 추측하고 있다. ‘충도집지(忠道執持)’는 유교 경전을 통하여 유교의 사상과 도덕을 공부하고, 그것을 몸소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또 ‘천대죄득서(天大罪得誓)’은 신라청년들의 천관(天觀)과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봉평비」⁴⁶⁾에도 ‘하늘에 죄를 얻을 것(獲罪於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당시 청년들에게 이런 의식이 뚜렷한 국가관과 윤리의식으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미년은 임신년 바로 전 해에 해당하는데, 임신년에 서약하기에 앞서 1년 전에 이미 서약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다시 서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미년은 진흥왕 12년(551)이나 진평왕 33년(611)으로 추측된

45) <壬申誓記石> :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并誓記天前誓今自三年忠道執持過失无誓若此事失天大罪得誓若國不安大亂世可行誓之. 又別先業末年七月廿二日大誓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판독 및 역주 : 崔光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자료 참고]

46) 봉평비는 울진 봉평리에서 발견된 신라비로, 높이는 204cm, 폭70cm의 해서체로 된 비인데 신라 법흥왕대[서기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의 일곱째 문단에 ‘若此者獲罪於天’[‘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로부터 죄를 얻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온다.[판독 및 역주 : 李明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자료 참고]

다. 여기 나오는 ‘시(詩)’는 공자가 편찬한 것으로 오경 중의 하나인 『시경』을 말하고, 『상서』는 『서경』의 옛 이름으로, 한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불렸던 유교 경전이다. ‘예(禮)’는 주말(周末)부터 진한대까지의 고례(古禮)에 관한 설을 수록한 책으로 오경의 하나이고, ‘전(傳)’은 『춘추』에 관한 주석서의 총칭이다.

<임신서기석>에는 신라 융성기 젊은 청년들이 유교 윤리를 현실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습득하고자 하는 열정이 잘 나타나 있다. 유교사상이 현실적 요청에 매우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었고 당대 청년들은 주체적으로 습득하여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강렬한 순수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두 청년이 국가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의식을 가지고 하늘(天)에 종교적 신앙 형식의 국가 수호 사명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유교 경전이 신라 사회에 수용되고 특히 화랑도의 근본정신인 충도(忠道) 실천 맹세는 <세속오계>의 수용과정에서 보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단순한 윤리 도덕의 실천을 넘어 이미 유교적 실천 덕목이 현실 사회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의식세계와 문화 전반의 관심사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세속오계>나 <임신서기석>의 유교 습합과정에는 당시 유교사상이 국민적 단합과 국가 번영의 의식구조를 추동하는 윤리 사상이자 문화의식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설총의 <화왕계>를 통해 당시 군왕에게 직접 상징적 형식[창작 설화]을 통하여 유교정치에서 중시하는 ‘충간(忠姦)’의 엄정한 구분을 강조하는 내용⁴⁷⁾을 분석해 보자. 승려 원료의 아들인 설총은 유학자(儒學者)로서 당시 신문왕에게 군주가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으로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는 일임을 풍자형식을 통해 현실적으로 제안했다. 그 내용은 왕을 화왕(花王)이라 하여 ‘모란’을 의인화하였고, 간신을 ‘장미’, 충신을 백두옹이라 하여 ‘할미꽃’에 비유했다. 장미는 부귀영

47) 『三國史記』 卷46, 「列傳」 第6, <薛聰傳> 參照

화와 쾌락 혹은 아첨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챙기고 왕을 유혹하고 찰나의 쾌락을 통해 결국 왕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간신적 존재로 묘사했다. 늙은 현자 백두옹 할미꽃은 간언(諫言)에도 불구하고 화왕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하지만 마침내 화왕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장미와 백두옹을 통해 간신을 멀리하고 충신을 가까이 두어야 바람직한 정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다.

그런데 <화왕계> 내용 중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로 짠 베가 있다 해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않나니, 무릇 모든 군자(君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 이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분은 『좌전』 성공 9년 조에 나오는 말⁴⁸⁾을 설총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설총이 비록 우화형식의 스토리를 통하여 임금에게 바른 정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유교의 경전을 토대로 군왕이 경계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그 내용 중에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 하지 않은 이가 드물다. 이 때문에 맹자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다”고 한 내용은 더욱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맹자까지 인용하면서 유가적 인정(仁政) 혹은 이상 정치를 제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총이 유가사상을 현실적으로 변용하여 군주를 바른 정치로 유도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3. 개방적 공존과 조화

고대 한국사회에서의 선인(先人)들은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세상의 진

48) 『좌전』 성공 9년 조에 “비록 실과 마로 짠 베가 있다 해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말 것이며, 희성과 강성 같은 큰 나라의 미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위고 못생긴 이를 버리지 말일이다. 무릇 모든 군자(君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함이 없으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리 혹은 지식을 수용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 주었고, 몸으로 실천하고 실현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사상적 측면에서 고유소인 특수성과 외래소인 보편성의 공존을 모색하고 조화로운 습합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고대사회의 정신사를 다양하게 꾸려 가는 모습을 모여 주었다.

우선, 귀산과 추항에게 당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교사상과 불교사상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변용해서 <세속오계>를 제안했던 원광은 승려였지만 도교와 유학을 섭렵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원광법사의 집안은 대대로 해동에서 이어져 조상의 전통을 받들어 길게 이어왔고 비범한 기량을 널리 펼치고 문장을 탐애하여 도교와 유학[玄儒]을 섭렵하고 자사(子史)를 연구하여 문장은 삼한에 떨쳤으나 박학함은 오히려 중원에 부끄러웠다.⁴⁹⁾

박학다식하였던 원광은 불교는 물론 동방의 보편사상이었던 도교이론과 유학사상에도 상당한 견해를 갖추었던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은 종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상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원광 개인의 취향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여러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고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공존적 조화 정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가 <세속오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당대 현실 속에서 불교적 교리를 적용하고 풀이[義解]하면서 조화로운 실천을 모색했던 것도 그런 정신의 발로라고 하겠다. 최소한 자기 종교에만 전념하고 타 종교나 사상적 배타적 자세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국유사』 「감통」 편에 760년 4월 초하루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나 열흘간이나 사라지지 않자 경덕왕이 당시 승려 월명에게 재앙을 물리칠

49) 『三國遺事』 卷4 <義解>5, <圓光西學> : 家世海東祖習綿遠, 而神器恢廓, 愛染篇章校校勘 獵玄儒, 討讎子史文華騰翥於韓服, 博瞻猶愧於中原.

기도문을 지어 달라고 하자, 자신을 소개하기를, “신승은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단지 향가만을 알 뿐 범성은 익숙하지 못합니다.”⁵⁰⁾고 한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월명이 자신을 승려이자 국선임을 밝히는 대목이다. 국선이란 화랑을 통솔하는 최고지도자를 말하는데,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등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선은 진골이나 성골 출신이어야 했고 6두품 이하는 불가했던 당대 최고 화랑지도자 계층이었다. 이는 화랑의 무리에 승려 신분을 가진 이들이 무리 없이 동참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안위를 위한 청년 수련단체에 승려들도 지도자로 참여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고대 한국인들이 외래소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공존적 조화를 모색한 사례는 특히 불교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삼국유사』권 제3에는 「홍법」편과 「탑상」편이 있는데, 불교가 한국 고대 사회에 전래되고 융성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홍법’에서 법이란 불교를 말한다. 이 땅에 전해진 불교는 특히 고유의 민간신앙과 융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런 방증으로 사찰 벽화에 늘 등장하였던 ‘신선(神仙)’이 초기에는 자연을 벗 삼아 한가로이 ‘풍류(風流)’를 즐기는 모습으로 그리다가 불교가 정착한 이후에는 불경을 읽는 모습으로 그려간 사례를 들 수 있다.⁵¹⁾ 이것은 불교 전파의 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한국고래의 전통신앙과 공존하는 모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홍법」편에 실린 ‘순도가 처음 고구려에 불교를 전하는 일’(順道肇麗), ‘마라난타가 백제의 불교를 여는 일’(難陀關濟), ‘아도가 신라 불교의 기초를 닦는 일’

50) 『三國遺事』 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二日並現挾旬不滅. 日官奏請, 緣僧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駕幸青陽樓望緣僧. 時有月明師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命開壇作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不閑聲梵. 王曰, 旣卜緣僧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51) 이경덕, 『우리 고대로 가는 길 삼국유사』, 아이세움, 2006, 76면

(阿道基羅), 원종이 불법을 일으키고 염촉이 몸을 희생한 일(原宗興法 厭觸滅身), 법왕이 살생을 금한 일(法王禁殺), 보장이 도교를 신봉하고 보덕이 절을 옮긴 일(寶藏奉老 普德移庵), 동경 흥륜사 금당의 열분 성인(東京興輪寺金堂十聖) 등에는 한결같이 설화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점⁵²⁾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그 내용 중 와룡(臥龍)이 바다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나 아도가 흥륜사를 지었는데 하늘꽃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염촉[이사돈]이 대담하게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면 만백성이 모두 복종할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의 목을 베었을 때 흰 젖이 한 길이나 솟구치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석양이 그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며 비가 쏟아졌다는 이야기, 황룡사를 짓기 전 그 터에서 황룡이 나왔다는 기사 등등 모두 고래의 설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일연은 <원광서학>에서 원광의 성과 출신, 출가, 중국 유학, 입적 등에 대한 내용이 『당전』과 『향전』이 다르므로 둘다 모두 옮겨 적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전』이란 당나라 때 쓴 승려들의 전기인 『속고승전』을 가리키고, 『향전』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설화집으로 알려진 『수이전』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우리 고유의 설화전이 읽히고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명한 ‘남백월의 두 성인 노흘부득과 달달박박’ 같은 이야기는 우리 고유의 설화적 구조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또 의상과 그의 열명의 제자들에 관한 전기도 설화적 요소가 곳곳에 배어 있다. 그의 제자 오진은 매일 밤 손을 뺀어 문 밖에 있는 석등의 불을 켜고, 표훈이라는 제자는 불국사에 기거하면서 늘 하늘나라를 왕래했으며, 황복사의 탑을 돌 때 땅바닥을 디디지 않고 허공을 밟고 다녔다는 얘기도 설화적인 구조다.

이런 내용들은 단군신화에서 비롯되는 신적 존재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무리 없이 만나는 조화론적 특성과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일연은 “불교는 넓디넓은 바다처럼 끝이 없어, 백 갈래

52) 이경덕, 같은 책, 82면

유교, 도교를 모두 받아들인다.”⁵³⁾고 표현했지만, 이는 일연이 승려임을 감안해야 하는 내용이고 실은 우리 고대 사회에서 고유사상과 외래사상들이 큰 갈등 없이 조화롭게 만나는 현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시원인 단군신화의 성속여일(聖俗如一)의 조화 정신은 가장 뚜렷한 한국윤리이자 철학사상의 특징으로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여 왔다. 단군신화의 탐구인세는 하늘로부터의 하강운동이었으며 재세이화는 땅으로부터 상승운동이었다. 이 두 가지 성향은 신사에서 성과 속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보였다. 그리고 하늘과 자연을 인간 세상과 화합시키는 단군신화의 조화 정신은 ‘현묘지도’인 풍류도(風流道)로 이어져 유불선 삼교 화합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인들에게도 이어져 원효의 ‘화쟁(和諍)’정신과도 통하였으며, 의천의 ‘내외겸전(內外兼全)’, 지눌의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벽이단(關異端) 정신이 강한 성리학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기지묘(理氣之妙)’의 원리로 통합되었으며, 동학에 이르러서는 ‘인내천(人乃天)’으로 묘합하는 전통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유학 습합과정에서 개인이나 두 명 이상의 지식인들이 합심하여 유교경전을 수용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설총은 방언으로 유교의 9경을 읽고 후학을 가르친 큰 유학자였다. 9경이란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악기』, 『춘추』, 『논어』, 『효경』, 『소학』⁵⁴⁾으로 보기도 하고, 『맹자』, 『이아』, 『주례』, 『의례』, 『좌전』, 『공양전』, 『곡량전』 등을 포함해서 보기도 하지만 유교 경전을 통칭하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유교 이론을 두루 섭렵한 유학자 설총이 창작 설화 형식의 풍자라는 간접적 변용 형식으로 유교적 정치의 요점을 강조한 내용

53) 『三國遺事』 卷3 「興法」 3 <寶藏奉老 普德移庵> : 讚曰 釋氏汪洋海不窮, 百川儒老盡朝宗.

54) 『한서』 「예문지」에서 이른바 ‘6예(藝)9종(種)’이라고 제시하였다.

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군왕을 바른 도리의 정치를 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 내용은 한국 고대 사회에서 유교사상 습합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례 중 하나라 하겠다. 소설적 표현 형식의 변용을 통해 유교사상의 현실적 적용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논한 과정에서 보면 유교 경전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개인 학습 수준에서의 유교 경전 습득 내용>

인물 혹은 금석문	습득 유교경전	비고
<임신서기석>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강수(强首)	『효경』 『곡례』 『이아』 『문선』	
설충(薛攄)	[9경] 『역경』 『서경』 『시경』 『예기』 『악기』 『춘추』 『논어』 『효경』 『소학』	* 9경에 『맹자』 『이아』 『주례』 『의례』 『좌전』 『공양전』 『곡량전』을 포함시키기도 했음

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면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경우 인물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비교적 자유롭게 유교 경전을 가려서 습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유교식 과거제도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삼국시대의 경우 대체로 유교 경전은 자유롭게 개인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 선택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과정 중에 신라 원성왕 4년(788년)에 시행된 이른바 ‘독서삼품과’⁵⁵⁾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5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 四年, 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독서삼품과의 유교경전 과정 구분>

독서삼품과	유교 경전	비고
상품(上品)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	* 단, 오경(五經)과 삼사(三史)와 제자백가에 두루 능통한 인물은 무차서(無次序) 등용
중품(中品)	『곡례』 『논어』 『효경』	
하품(下品)	『곡례』 『효경』	

이를 통하여 원성왕대에 이르면 유교경전의 습득 정도, 즉 품계에 따라 관직에 등용하는 차서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 취향과 선택에 의해 학습되던 유교 경전이 그 습득 수준에 따라 관직의 품계가 달라지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유교경전이 이제 벼슬길에 나서는 직위와 품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물론, 독서삼품과는 골품제의 제약과 진골 귀족들의 관직 독점 등으로 인하여 그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시대에 유교를 수용하여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비하면 매우 실질적인 단계와 합리적 과정을 체계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시 이런 체계화 과정 이전에는 단지 활쏘기 실력에 인물을 선택했다는 기록이 그것을 말해 준다.⁵⁶⁾ ‘단지 활쏘기에 의존하여 인물을 가렸다’는 것은 사상적으로 보면 거의 고유사상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독서삼품과를 두었다는 기록은 보편성을 지닌 외래소를 수용하여 습합한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과정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교 습합 과정은 682년 신문왕 2년에 이르러 유교국립대학인 <국학>이 설립되면서 더욱 구체화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학의 유교경전 습득 단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四年:.....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 以弓箭選人, 至是改之

<국학>의 교과목 편성

품계	교과목		비고
	필수 과목	선택과목	
상품(上品)	『논어』 『효경』	『예기』 『주역』 『춘추좌씨전』	
중품(中品)	『논어』 『효경』	『모시』 『산학』 『상서』 『문선』	
하품(下品)	『논어』 『효경』		

<국학>의 경우 필수 교과를 두기는 했지만 상중하품을 품계 구분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이고 품계별로는 자유롭게 유교 경전을 선택하는 모형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교가 이제 국교화 수준에 근접하는 국학 형식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시까지만 해도 유교 경전 선택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학>에서는 유교 경전을 주로 교육하였지만 유교 사상 자체보다는 현실적 요청인 행정과 외교 실무의 바탕이 되는 한자와 문장 작성 능력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음이 드러났다.

IV. 맺는 말

한국인들은 고유사상의 터전 위에서 늘 외래사상을 수용하여 사상이나 철학의 보편성을 확대해 왔다.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소는 우리 민족만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같은 문화권이라도 한국인 다르고 중국인과 일본인 다른 것은 각기 가진 사상적 고유성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하겠다. 한편, 보편성을 지닌 유불도 등 우수 외래사상을 수용하여 우리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해 왔고, 시대마다 강렬한 정교의 이념으로 신념화하여 그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한국고대의 어느 시점에서 유교 사상과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 되었

는지 연도를 명확히 구명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태학> 설치(372년) 같은 경우를 기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고대부터 유교사상을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삶을 추동하는 이념으로 삼아왔다. 고대인들의 경우 가정과 국가에 효도와 충성을 다하는 유교 덕목의 본질을 충실하게 내면화하여 시행하였고, 조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종교와 정치, 특히 도덕 교육적 측면에서 유교는 고대사회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교나 불교 등 외래소를 수용함에 있어 한국고유사상은 늘 터전과 기반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결정했던 고유사상은 늘 보편성을 담고 있었던 외래의 수준 높은 종교와 사상을 대체로 조화롭게 수용하고 습합해 왔다. 그것은 단군신화와 같은 한국고유사상의 시원적 근원성에 내재했던 특성, 즉 배제나 차이[異]를 인정하지 않는 조화정신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한국고유사상의 특질인 신이성 혹은 영묘성, 그리고 공존과 감통의 정신은 이질성을 가진 외래소를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사상적 포유 역량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상이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고유소와 외래소를 논하다 보면 결론적 시점에서는 늘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를 규정하는 사유구조를 생각해 보게 된다. 유교적 이성주의가 보편성의 확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고래의 고유했던 살가운 이야기 혹은 정서를 상당부분 사라지게 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한국사상의 고유한 측면에서는 타인을 배척하거나 차이를 거부하는 태도나 의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배제 의식이 고유한 습속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을 두고 최남선은 『삼국사기』의 ‘상식적 수정(修正)’이 『삼국유사』의 ‘원형적 잉전(仍傳)’을 많이 앗아갔다고 표현한 바 있다.⁵⁷⁾ 이 점은 아쉬운

57) 崔南善 編, 같은 책, 13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은 매우 합리적인 사유구조와 보편성을 가진 이데올로기이다. 무엇보다 가족윤리처럼 ‘공존’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사유구조를 가진 사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고대에 유교사상이 습합되는 과정을 보면 ‘우열’을 논하거나 공존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삼국사기』에서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접근 방식에서 신화나 설화 같은 것을 ‘배제’해 버린 점이 그렇고, 선덕여왕을 ‘암탉’이나 ‘암돼지’에 비유해 여성리더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단적으로 표현해 버리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외래사상을 수용하고 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안타깝고 부정적인 부분이다. 공자가 괴이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을 말한 것은 당시 ‘사람의 도리’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상적 특성을 보면 유학이나 성리학은 이성적 요소가 강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인문정신을 배격한다. 그런 점에서 유교에서는 신이나 신화는 조심스럽게 논의되어 왔다. 그것에 대한 접근이나 언급을 삼가는 것은 그런 사상들이 지닌 비합리성의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성이나 이치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하거나 강조하면 독선적 사유가 확산되기 쉽다. 한국 고대의 사상적 전개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정에서는 도불을 허무적멸적 사유로 단정하고 극단적 배척을 보였던 사례는 그런 현상을 잘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이성과 과학이 정점에 이른 오늘날에는 과거 미신같이 여겨지던 주술적 상상력이 오히려 현대 문화의 새로운 코드가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한국적인 정감과 상상력은 유교의 습합 과정에서 상당부분 사라지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새로운 해석과 접근이 요청되고 있는 바라 하겠다. 과거 『삼국유사』를 주목하지 못하고 오래 방치하다시피 하였지만, 미래에는 한국적 창의력과 상상력의 보고로 작용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한국적인 본래의 문화와 사유형식 그리고 상상력은 미래적인 요소로

여전히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한국인 혹은 한국사회의 '배타성'은 날이 갈수록 공존보다는 극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라는 의식보다는 '나'와 '남'을 구분 짓는 방식이 노골화되고 있고, 다름을 배제하는 예리함이 칼보다 날카롭다. 이따금 이를 걱정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행으로 공존의 몸짓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차가운 배제 분위기는 동토(凍土) 같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존'을 생각하는 분위기가 열어지면 그 사회는 윤기가 없다. 다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르면서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 사회가 균형을 이룰 것이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본유한 사상과 정서에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열린 정신과 주체적인 선택으로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절실하다.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공감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늘 강조하고 견지해 왔다. 따뜻한 인성과 연대감으로 모두가 함께 인간 본연의 대등하고 관용적 삶을 누려 왔다. 오늘 한국의 각종 종교 교단은 타인 배려와 존중,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전통적 사유구조 속에서 진지하게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공동체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관용과 연대의 전통 정신을 본받고 동반하고자 하는 노력과 소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사상과 종교의 관용을 베풀어 왔다.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포용하는 마음 바탕이 있었다. 관용과 포용은 한국사상의 중요한 특색이자 의미 있는 정신이었다.

※ 이 논문은 2020년 1월 21일에 투고되어, 2020년 1월 2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20년 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2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참고문헌>

- 『論語』, 『道德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史記』, 『左傳』, 『續高僧傳』
崔南善 編,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88
- 『미당 서정주 시전집』, 1권 <신라초>, 은행나무, 2015
-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 II, 한길사, 1998
-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3,4 <주석편>(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丁淳穆, 「教育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崔根德, 「儒教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明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崔光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대금석문>
김철준·최병헌,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일지사, 1986
- 崔英成 註解, 『註解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87
- 金載元, 『檀君神話의 新研究』, 探求堂, 1982
- 박희병,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2006
- 이경덕, 『우리 고대로 가는 길 삼국유사』, 아이세움, 2006
- 고현아, 「신라 원화제 시행의 배경과 성격」, 『역사와 현실』67, 2008
- 김유성, 「난랑비서 해석에 대한 고찰」, 『대구한의과대학 논문집』1, 1983
- 박남수, 「신라 진흥왕대 정치사회와 화랑도 제정」, 『사학연구』 92, 2008
- 이기동, 『신라의 골품제도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장일규, 「최치원의 삼교융합사상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4, 2005

Abstract

Indigenous Korean Thoughts and Syncretism of Confucianism / Lee, Sang-seong

Korea is a country which has its own indigenous thoughts. Ever since the beginning of its history, there have been some indigenous thoughts developed by Koreans within the terrain of Korea, which can be defined as indigenous Korean thoughts. They have been diversely affecting Korean's daily life, as the essence of their lives. The first characteristic of indigenous Korean thoughts is their mysterious and marvelous mysticalness. This characteristic started from the Dangun mythology, the origin of Korean people, and has been deeply infused into the ancient Korean society and people around that time. Mysticalness is not an irrational element. It is a high and sublime belief derived from the Sky and a spiritual trait that cannot be explained only through rationality. The theocratic mysticality or clarity which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ancient times is the essence of the indigenous Korean thoughts.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ir compatibility that allows coexistence. Since early times, Koreans have been living their lives together within the sense of unity that they are 'the Korean race.' That is, they have been lead a communal life with the sense of one race, while cultivating their communities.

These indigenous Korean thoughts have become a foundation to accept the foreign thoughts. Particularly,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thoughts of Confucianism and making them infused into the daily life. Ancient Koreans have accepted Confucianism, the foreign though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indigenous thoughts. During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three major characteristics as well. Firstly, they intended to independently adopt Confucianism based according to their own faith and belief, and then to implement it in their lives. Secondly, they adapted and transformed Confucianism to be true to reality and applied them or put them into action in

a practical way. Thirdly, they had a format of accepting Confucianism yet promoting coexistence and harmony with other foreign thoughts as well. Accordingly, Koreans have smoothly accepted the foreign thoughts called Confucianism which possessed universality within the frame of particularity of indigenous Korean thought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to develop them into Korean Confucianism with unique Korean characteristics.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se whole process with the focus on Samguk Yusa: Heritage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Sagi: History of Three Kingdoms.

Key words: indigenous Korean thoughts, mysticalness, compatibility, particularity, Confucianism, universality, Samguk Yusa, the Heritage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k Sagi, Samguk Sagi: History of Three Kingdoms.